

# 손태승 연임, 예보도 찬성... 라임 해결·그룹체계 구축 '과제'

(우리금융그룹 회장)

주총서 우호지분 절반이상 추정  
법원 중징계 효력정지 '결정적'  
수익구조 다변화 등 과제 산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선임안건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새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손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은 50% 이상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 과점주주(I 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각각 약 30%, 6.42%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의견에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가 손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임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징계(문책경고) 효력정지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



우리은행

/연합뉴스

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재 임기만 유지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20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면서 연임이 확정될 수 있었다.

◆금감원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회장의 징계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변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서류작업을 마치는 대로 오는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금감원의 즉시항고가 손회장의

연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중징계 효력정지가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일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문책경고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등 당면과제 첩첩산중

현재 손태승 회장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손 회장은 우선 금융당국과의 끈기로운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려 온전히 연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앞서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약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 임기 동안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 조사도 앞두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26건으로 우리은행(150건)이 가장 많다. 피해액은 411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합동 현장 조사를 오는 4월 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우리은행에 집중돼 있는 수익구조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총 자산(474조 3000억원) 중 우리은행 자산은 403조 9000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9041억원 중 우리은행(1조 5408억원)의 비중도 80% 수준이다. 따라서 수익구조 다변화 등 지주회장으로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그룹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이 은행, 카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도 그 이유다. 자산관리, 글로벌, 기업투자금융(CIB) 등 주력사업을 확대해 주력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국내銀 해외점포 비중 ↑... 순익 1위는 越

금감원 '해외점포 총자산 1336억' 당기순익 9억8800만 前 전년과 비슷  
신남방 소재 점포, 자산 크게 증가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가운데 베트남 지역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9억8800만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은행의 총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전년 대비 소폭 높아졌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이 1억5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홍콩과 중국이 각각 1억4900만 달러, 1억1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총자산은 133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6.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신규진출과 영업확장 등으로 신남방 소재 점포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요 선진국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0등급으로 전년 2-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해외점포 현지화 수준 부문은 1-등급, 본점 국제화 수준 부문은 2-등급으로 전년 대비 각각 1단계씩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195개(39개국)로 전년 말 대비 5곳이 늘었다. 8개 점포가 새로 생기고, 3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신규 진출 점포들은 신남방 지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우리은행 코로나19 피해 기업 긴급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수출기업을 긴급지원한다.

우리은행은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시행 중인 '긴급 지사화사업' 참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가비 실비지원,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지사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이 제한된 기업들을 위해 KOTRA 해외 무역관이 현지 대면 마케팅 업무를 긴급 대행하는 사업이다.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해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점검,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우리은행은 KOTRA 긴급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에게 사업참가비 중 일부를 선착순 지원한다. 또한,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해당 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해 대금 수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출대금 관련 송금취급 수수료, 수출 사후관리 관련 전신문 발송 비용 등 각종 금융비용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수년간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참가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KOTRA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역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우리 기자

## 카뱅, 계좌에 AI 접목... 매주 자동저축

6개월치 입출금 패턴·잔액 분석

카카오뱅크는 25일 은행권 최초로 고객의 계좌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을 적용한 수신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소액 자동 저축 상품인 '저금통'에 '자동 모으기' 규칙을 추가했다.

자동 모으기는 저금통에 연결된 입출금 통장의 과거 6개월간 잔액과 입출금 패턴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매주 1회(토요일) 고객에게 알맞은 저축 금액을 산출, 저금통에 저금하는 기능이다.

AI 분석을 통한 자동 모으기의 최저 저축 금액은 1000원이며, 최대 금액은 5000원이다. 총 저축 한도가 10만원인

저금통의 상품 특징을 유지하고, 고객들이 큰 부담 없이 저금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모으기의 주 1회 저축한도를 최대 5000원으로 정했다.

자동 모으기 규칙 추가로 저금통은 최대 주 6회 저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00원미만 동전 모으기가, 토요일에는 자동 모으기가 실행된다. 단 자동 모으기는 입출금 통장의 잔고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저축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 모으기와 동전 모으기 규칙은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두 가지 규칙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저축 한도인 10만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수신 상품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저축하는 재미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더 유용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출시 13일만에 100만 계좌가 개설됐다. 현재 누적 계좌 개설 수는 170만좌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야구팀도 응원하고 우대금리도 받자"

응원팀 성적, 관중수 따라 금리 제공

신한은행은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2020 신한 프로야구 적금 및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상품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2020 신한 프로야구 적금'은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이자율은 연 1.4%며, 우대금리 1.4%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연 2.8%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명은 '2020 신한 두산베어스 적금', '2020 신한 KIA 타이거즈 적금' 처럼 고객이 선택하는 구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해진다.

우대금리는 ▲조기가입 보너스 우대금리 연 0.2%포인트(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고객 대상)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0%포인트)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한국시리즈 최종 경기까지의 관중수 800만명 돌파 시 우대금리 0.2%를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